



영화인들이 뽑은 최고 영화는 '하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 ▲ 1위 = 김기영 감독 '하녀'(1960)
- ▲ 2위 =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2003)
- ▲ 3위 = 봉준호 감독 '기생충'(2019)
- ▲ 4위 = 유현목 감독 '오발탄'(1961)
- ▲ 5위 =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2003)
- ▲ 6위 = 하길중 감독 '바보들의 행진'(1975)
- ▲ 7위 = 이창동 감독 '시'(2010)
- ▲ 공동 8위 =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2022)
- ▲ 공동 8위 = 허진호 감독 '8월의 크리스마스'(1998)
- ▲ 10위 = 홍상수 감독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

고(故) 김기영(1919~1998) 감독이 연출한 '하녀'가 영화인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1위에 올랐다.

한국영상자료원(영상자료원)이 31일 공개한 '한국영화 100선' 자료에 따르면 '하녀'(1960)는 10년 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다.

학계, 언론, 창작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영화인 260명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지난해 6~8월 투표가 이뤄졌다. 영상자료원이 해당 조사를 실시한 건 2006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조사에서 7위에 자리했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2003)은 2위로 뛰어올랐다. 3위는 한국 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2019)이 차지했다. 봉 감독은 10위권 내에 '살인의 추억', '기생충' 두 편을 올렸다.

박찬욱 감독 역시 '올드보이'(2003)가 5위, '헤어질 결심'(2022)이 공동 8위에 올라 두 편의 영화를 10위 안에 진입시켰다. 박 감독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100위 안에 올린 감독이기도 하다. '공동경비구역 J.S.A'(2000), '복수는 나의 것'(2002), '친절한 금자씨'(2005), '박쥐'(2009), '아가씨'(2016) 등 7편이 '한국영화 100선'에 들었다.

임권택 감독이 6편, 이만희·이창동 감독이 각 5편, 김기영·배창호·봉준호 감독이 각 4편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영화 100선' 최다 출연 배우는 송강호와 안성기로 각각 10편에 출연했다. 여자 배우 중에선 배우나가 4편에 출연해 가장 많았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000년대 이후 영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24편, 2010년대 14편, 2020년대 1편 등 21세기 제작 영화 39편이 100위 안에 선정됐다.

반면 1940~1960년대 제작된 영화는 2013년 조사에서는 34편이었지만 이번에는 16편으로 급감했다.

이번 조사에선 여성 감독들의 약진 또한 두드러졌다.

2013년에는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1995)이 유일하게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번에는 총 9편의 여성 감독 영화가 100위 안에 들었다. 박남욱 감독의 '미망인'(1955),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 정주리 감독의 '도화야'(2013) 등이다.

영상자료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한국영화 100선' 특집 도서를 발간한다. 선정작의 리뷰와 해석 등이 담길다. /연합뉴스

총무로 형님들 OTT 나가신다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 김윤석에 이어 강동원까지. 2일 방송가에 따르면 총무로 주름잡던 영화배우들이 드라마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선 드라마 판 신인 배우 송강호가 눈길을 끈다. 연기 생활 35년 차 영화배우 송강호는 디즈니+ 16부작 드라마 '삼식이 삼촌'을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했다.

'삼식이 삼촌'은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1950~196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이다. 브로커 박두철과 엘리트 공무원 김산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손을 잡는 이야기다.

송강호가 연기한 박두철은 조직폭력배, 기업 총수, 국회의원, 미군까지 인맥이 닿는다. 전쟁통에도 자기 사람에겐 하루 세 번 밥을 먹게 해줘 '삼식이 삼촌'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의 자산이다.

주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는 박두철의 복잡한 모습을 송강호는 영화에서 갖고 닮아온 연기 내공으로 섬세하게 표현해낸다.

송강호와 함께 2000년대 총무로 대표되는 연기파 배우 설경구도 다음 달 공개되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 '돌풍'으로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온다. 1994년 드라마 '큰 언니' 이

송강호 등 주연급 배우들 잇따라 진출 막강한 자본력에 감독·스태프 등 이동 정치계·재벌·범죄 등 스토리도 다양

후 30년 만이다.

'돌풍'은 부패 재벌과 결탁한 대통령을 심판하고 정치판을 바꾸려는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와 그에 맞서는 경제 부총리 정수진(김희애)의 이야기다. 설경구는 대통령 서거 후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동안 4주 안으로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박동호 역을 맡아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낸다.

'돌풍'뿐 아니라 CJ ENM 스튜디오스에서 제작하는 메디컬 범죄 드라마 '하이퍼 나이프'에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의로 꼽히는 최덕희 역도 맡는다. 후배 배우 박은빈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김윤석도 넷플릭스 새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주연을 맡는다. 그가 2006년 '있을 때 잘해' 이후 18년 만에 짙은 드라마다.

어느 여름 깊은 숲속 펜션에 나타난 수상한 여자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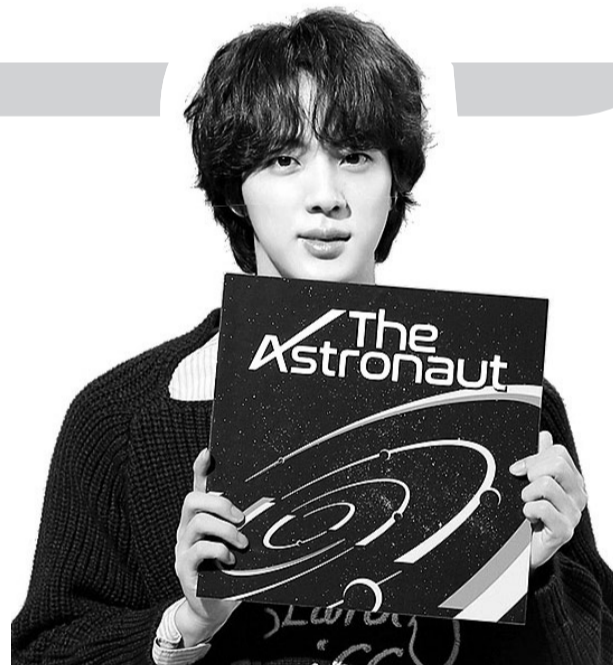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펜션 주인이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김윤석은 펜션 주인 전영하를 연기한다.

강동원도 20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다. 내년 중 공개되는 디즈니+ 새 시리즈 '복극성'에서 전직 '에이스' 국제용병으로 국적과 과거 이력이 배일에 싸인 인물 산호 역을 맡아 전지현과 호흡을 맞춘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OTT들이 등장하면서 방송가에서는 영화감독과 스태프 등이 OTT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방영 날짜를 정하지 않고 촬영을 마무리하는 사전 제작도 일반화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과거 지상파에서 방송되던 드라마들은 쫓기듯 촬영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드라마 배우들도 여유롭게 캐릭터를 연구하고 고민할 시간이 많아졌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OTT들이 등장하면서 배우들의 몸값이 올라 영화와 드라마 출연료가 비슷해졌고, OTT 드라마는 글로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배우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프로젝트를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됐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BTS '진' 컴백 초읽기

12일 제대...13일 '2024 페스타' 참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사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오는 12일 전역해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2일 소속사 박히트뮤직에 따르면 진은 전역 다음날이자 방탄소년단 데뷔 기념일인 오는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 '2024 페스타'(2024 FESTA)에 참석한다.

'페스타'는 방탄소년단이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며 팬들과 만나는 축제로, 진은 이 가운데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팬 이벤트에 참석한다. 이는 그의 전역 이후 첫 공식 활동이다.

박히트뮤직은 "이번 행사는 '아미'(방탄소년단 팬덤)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진의 제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팬 이벤트는 '진스 그리팅스(진's Greetings·1부)'와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맑음'(2부)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허그(Hug·포옹)회가 진행되고, 2부에서는 '아미'가 보고 싶어 하는 진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코너가 준비된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팬을 위해 2부에 한해 방탄소년단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버스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한다.

현재 전역을 앞둔 진을 포함한 RM, 제이홉, 슈가, 지민, 정국, 뷁 일곱 멤버 전원은 군 복무 중이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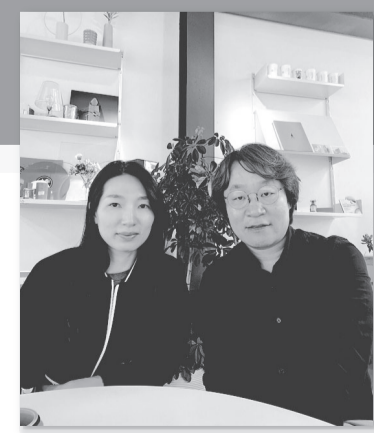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